

■ 2023년도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사업
- 회의일시 : 2022년 11월 25일(금) 14:0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세미나 1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고봉준, 유종인, 한영인, 홍명진, 황선미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사업은 문인 대상 문학집필공간을 보유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문학 창작 환경을 통해 우수한 문학작품의 생산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작가들의 창작여건 개선이 결국 수준 높은 문학작품의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2023년도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사업에 신청한 단체는 두 곳이었다. 신청단체의 규모가 예상보다 적다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이는 작가들이 선호하는 유수의 창작공간이 이미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이해한다.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해 계획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문학집필공간의 지속적 운영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의 사업계획서는 무척 인상적이었다.

이번 심의에 참여한 다섯 명의 심의위원은 먼저 제출된 서류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평가 의견을 작성하는 것으로 1차 심의를 진행했다. 11월 25일에 진행된 대면 회의에서는 1차 심의의 결과를 공유하고 세부 항목들에 대한 검토 및 확인 과정을 거쳤고, 적절한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했다. 심의는 이미 제시된 세 가지 기준, 즉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40%), 운영 차별성(40%), 해당 분야 발전의 기여도와 파급효과(20%)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간의 특징과 프로그램의 정합성 등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과정의 특징은 이 사업에 배정된 금액과 신청단체 수가 적다는 점이다. 이는 문학집필공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미 여러 단체가 연속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즉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의 대부분이 연속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에게 지원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사업규모가 작거나 신청단체가 적다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은 새로운 집필 공간을 발굴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심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심의위원들에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한 곳의 신청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집필 공간을 운영한 경험이 없다는 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이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으나 해당 문제들은 선정 이후 협약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심의위원들은 적절한 지원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다. 집필실의 규모, 시설 및 환경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려고 노력했다. 다행히도 이번 심의에 응모한 단체가 많지 않아서 특별한 이견 없이 이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안정적인 집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작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교류와 이동이 제한되었고, 그로 인하여 집 이외의 안정된 집필 공간을 찾는 것이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창작에서 ‘공간’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가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집필 공간을 제공하는 모든 단체에게 감사드리며 이 사업을 통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심의위원 일동